

임용, 유캔두, 야너두



안녕하세요. 2020년도 중등임용고사에 합격한 물리교육과 16학번 엄영준입니다. 자랑부터 하자면, 저는 1차에서 고득점을 받았고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입니다. 흔하고 성의없는 합격 수기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나에게 맞는! 나만의 공부법이기에 때문에 특별함이 담긴다고 생각합니다. 임용고사를 준비하시는 재학생 여러분께,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빨리 찾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저의 피나는 노력을 생생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경험을 참고하셔서 본인은 공부할 때 어떤 스타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각자에게 최선의 공부 방법을 빨리 찾아, 조금씩 습관처럼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도 임용...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엄 영 준
물리교육과 16학번(물리)

나는 원패스 할 사람이다.

학교생활 하면서 저는 항상 원패스 할 거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학점도 제대로 안 나오면 부끄럽잖아요? 부끄럽지 않기 위해 공부하다 보니 학점도 잘 받을 수 있었고 그럴수록 진짜 원패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잘 안 풀리는 문제나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 있어도 **'할 수 있다, 난 원패스를 할 사람이다.'**를 반복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며 해결했고, 끝내 초수에 합격했습니다. **자신감!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재학생 때 합격 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3학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임용 공부를 시작하세요. 짧게는 8시간, 길게는 10시간 공부하세요.' 저는 못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다고 원패스를 포기하기는 싫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남들보다 더 일찍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1학년	2학기부터 임용고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공부를 몇 시간씩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수업을 짹 채워서 들었고, 한국사 자격증도 1학년 겨울방학에 미리 땀습니다.
2학년~ 3학년 여름방학	어려운 전공 수업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 일반 물리를 공부했습니다. 평일만 하루 서너 시간씩 했습니다.

3학년 2학기	8월부터 ‘한창민의 직관물리’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인터넷 강의 듣는 것을 고민했었는데, 아무래도 임용 전문 강사들이니까 개념들과 문제들을 잘 정리해두었을 거로 생각하고 인강을 들었습니다. 1단계 인강을 들었고, 써웨이 대학물리학 문제 위주 로 풀었습니다.
3학년 겨울방학	교육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학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 전태련 교육학 ’ 인강을 들었습니다. 정리돼 있는 교재(핵심특독) 가 있는데 조금씩 외웠습니다. 또한, 직관물리 2단계를 듣고 써웨이 대학물리학을 풀었습니다.
4학년 1학기	교생을 나가서 공부할 시간이 전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육학은 꾸준히 외웠고, 물리 기출을 조금씩이라도 풀었습니다. 교생이 끝나고 난 후에는 연도별로 하루에 한 개씩 풀었습니다. 교육학 암기를 꾸준히 했고 직관물리 3단계를 들었습니다.
4학년 여름방학	여름방학부터 물리교육론 공부 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정리한 자료로 공부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미 들었던 내용들이어서 공부하는 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퍼펙트 물리와 직관물리 4단계를 공부했습니다.
4학년 2학기	전공은 아는 내용만 복습했습니다. 교육학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주로 교육학 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을 암기하고 사설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1차(2차) 시험당일	당일에 준비물과 간식만 챙겨갔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여유롭게 가져온 빵이랑 과일 먹었습니다. 이걸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일에 본다고 달라질 것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할 거 가져와서 공부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1차 시험 이후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이 돼서, 시험이 끝나고 선배들과 스터디 그룹을 짰습니다. 스터디 그룹을 우선적으로 짜고 일주일 쉰 뒤 스터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교과서 분석을 우선적으로 하고 수업실연과 모의면접을 했습니다.

교육학 박살내기

저는 전태련 교육학에서 이론 부분만 들었습니다. 겨울 방학 동안 인강을 다 듣고 나서 여러 강사의 모의고사 자료를 분석하고 모의고사에 나온 개념과 임용고사에 자주 출제된 영역부터 외웠습니다. 암기방법에서 특징을 꼽자면 **개념에서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단어를 표시해두고 반복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키워드만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 내용은 그냥 그 문장을 통째로 외운 적도 있었는데, 반복하지 않은 것은 결국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사 2주 전부터는 새로운 것을 보기보다는 외웠던 것들을 상기했습니다. 중 단원 제목만 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공책에 써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넣는 식의 공부를 했습니다.

스터디는 둘이서 범위를 정해놓고 각자 외워온 뒤 서로 문제를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타바의 귀납적 모형의 특징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식으로요. 개인적으로 교육학 공부하는 거 정말 싫었는데, 친구랑 하니까 억지로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교육학 공부 싫어하시는 분들! 스터디 하세요!**

전공 박살내기

〈일반물리〉

저는 2학년부터 이틀에 한 장씩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하루는 개념과 예제 풀이, 다음 날에는 문제 풀이와 개념 복습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답노트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틀린 문제는 꼭 표시해두고, 다시 풀어서 맞혔다고 표시 지우지 말고 꼭 다시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브노트는 ‘내가 정말 아는 개념이다.’하는 것은 뺐습니다. 중요해 보이는데 생소하거나 자꾸 까먹는 개념들만 적었습니다.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두고 화장실 갈 때나 버스에서 간간히 보면서 암기했습니다.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는 스터디를 통해 친구들에게 일반 물리 개념을 설명해주고 각자 문제를 풀어서 공유했습니다. 설명할 때 **칠판을 많이 활용**했는데 남을 이해시킬 정도로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도 할 수 있고, 말도 자꾸 하다 보면 다듬어지니까 교생실습이나 수업실연에서 조금이나마 덜 긴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3학년 2학기부터는 주로 문제풀이를 한 후 숙제 검사 스터디정도만 했습니다. 범위를 정해서 풀이와 모르는 문제를 알려주며 풀이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가끔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스터디를 하니까 꼭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물리 스터디가 필수는 아니지만, 다양한 풀이 방법을 습득하고 싶다 하는 분께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공 물리〉

초수는 모든 전공 지식을 갖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만점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버틸 건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개념들이 출제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려워서 공부하기 싫은 것들은 뺐습니다. 다행히 시험에는 안 나왔네요. 또한 시험에서 알려줄 것 같은 공식들은 굳이 암기하지 않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기출 문제들만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문제를 보면 답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반복했습니다. 09년도

문제까지 두 번씩 풀었고, 한창민 4단계에 있는 문제집 세 번씩 풀었습니다.

〈물리교육론〉

전남대 물리교육과 재학생들은 축복받았습니다. 정말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임용 기출문제가 풀렸습니다.** 수업 때 들은 내용이 대부분이라 공부하는 데 힘들지 않았습니다. 수업 열심히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교육학처럼 질문하는 정도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논술형 문제도 사라지고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너무 깊게 안 파셔도 됩니다. 임용 한 달 전부터 교육과정을 암기했습니다. NCIC를 검색하면 **교육과정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차 시험 박살내기

제가 지원한 지역은 수업실연과 면접만 봤습니다. 수업실연은 일주일에 세 번씩 했습니다. 수업실연 하기에 앞서 교과서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실험이 있고, 실험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실험이 없는 지역이어도 수업 시간 탐색 과정에서 유의사항을 알고 제시를 한다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우선 교육과정에 있는 탐구 활동이 포함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물리1, 물리2, 중학교 과학, 통합과학 순서로 했습니다. 탐구 활동이 포함된 부분을 다루고 나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부분만 골라서 했습니다. 실제 수업실연 시험지 양식을 구해서 주로 5E와 POE 모형으로 모의 시험지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시험을 내주고, 구상시간을 정하고, 실연하고, 피드백하는 식으로 2차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면접은 일주일에 두 번씩 했습니다. **윤승현의 '심층 면접'**을 활용했습니다. 범위를 나눈 뒤 그 범위 내에서 각자 문제를 만들어 와서 실제 심층 면접처럼 진행했습니다. 저는 평가원 지역이어서 그냥 기출 문제만 계속 봤습니다. 교육청 시책을 안 봤었는데,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평가원 지역이어도 **교육청 시책을 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지만, **교육청 시책을 녹여서 대답한다면 큰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끝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 진심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부를 일찍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2학년부터 각 잡고 공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두세 시간이라도**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어도 좋으니까 이 글을 보고 바로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3년 놀다가 4학년 때 하루 8시간 공부하라고 하면 정말 힘들실 거예요.

원서를 지원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꼭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2차 시험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차에 자신이 있었지만 2차 시험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차에서 변별력이 낮은 지역을 찾다가 충북을 선택했습니다. 예상대로 2차 점수가 낮았고 2차에서 변별이 컸던 지역으로 썼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꼭 가고 싶은 지역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지역이든 상관이 없다면 그 교육청에선 어떤 평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확실히 2차 시험 종류가 많은 지역일수록 더 바빠 보였습니다.

끝맺음도 길어졌습니다. 앞서 말했었지만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공부 방법이 정답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 합격 수기를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탐색하기를 바랍니다. 글 쓰는 데에 재능이 없어서 보기 불편했을 텐데, 긴 글 다 읽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추천 개론서 및 인강

구분	교육학	일반물리	전공물리	물리교육론
개론서		할리데이 일반 물리 서웨이 대학물리학 퍼펙트 물리		새 물리교육학총론
인강	〈전태련 교육학〉	한창민의 ‘직관물리’ 1단계	한창민의 ‘직관물리’ 2·3·4단계	